

태도의 차이

그들을 거인으로 만든 일, 조직, 삶의 원동력

김남인 지음

출간일 : 2013년 5월 10일

정가 : 14,000원

페이지 : 288쪽

판형 : 152*225

분야 : 자기계발 경제경영

ISBN : 978-89-97379-19-4 (03320)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왜 누군가는 평범함을 뛰어넘어 최고가 되는가? 결과를 바꾸는 ‘한 곳 차이’ 마이클 샌델에서 존 헌츠먼까지, 일가를 이룬 거인들의 위대한 인생특강

어눌한 말솜씨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세계적인 명강의를 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쇠락해가던 자동차 제국 GM을 되살린 밥 루츠의 ‘개발자 자존심’은 어디서 왔을까? 고졸 평사원이던 마이클 터거를 세계 최고 물류 기업 페덱스의 CEO로 만든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IT, 과학, 경영,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을 직접 만나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거인으로 만들었는가?” 조선일보 ‘위클리비즈’의 기자로 일했던 저자 김남인은 전 세계의 구루들을 만났기 위해 20만Km를 비행했다. 거인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아준 것은 ‘그들을 거인으로 만든 태도의 비밀’이었다.

거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일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조직과 치열하게 부딪쳐야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남다른 태도’였다. 이 책은 거인들의 일, 조직, 삶을 이끌어간 원동력에 대한 위대한 인생 특강이다.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침을 깨우는 의식에서 별레의 시각까지

‘소크라테스의 재림’이라는 평을 듣는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을 압도하는 대중 강연으로 유명하다. 문답식 강의는 어려운 정치철학을 친근하게 느끼게 했고, 대중들은 유튜브와 TV를 통해 강연을 보며 열광했다.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로 부임한 샌델, 그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고 얼굴을 붉히는 천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젤리빈 사탕으로 섭외한 레이건과의 토론에서 무참히 깨진 뒤, 청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위력을 실감했다. 샌델은 끝없는 질문과 단련, 치밀한 연습을 통해 마침내 무대 위의 강연을 ‘홀륭한 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2장, ‘최고의 강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중에서)

난독증이 심해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 소년, 스스로를 ‘먹기 위해 살았다’고 말하는 소년이 20대의 나이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요리사가 되었다. 성공한 스타요리사이며 사회사업가로 활동 중인 제이미 올리버의 이야기다. 그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노동의 가치를 배워 자립할 수 있게 했고, 영국의 음식 문화를 바꾸는 캠페인을 벌여 나갔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가치에 대한 ‘끝없는 몰입’으로 ‘진화하는 자아’를 만든 것이다. (3장, ‘열정과 몰입으로 나의 브랜드를 증명하라’ 중에서)

이 책은 이처럼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최고의 반열에 오른 대가들을 만든 ‘남다른 차이’를 찾아 나선 책이다. 거인들마다 그 ‘차이’는 조금씩 달랐다. 쇠락해가던 자동차 제국 GM을 되살린 밥 루츠의 ‘개발자 자존심’, 고졸 평사원이던 마이클 터거를 세계 최고 물류 기업 페덱스의 CEO로 만든 ‘리더의 자격’, 스티브 잡스의 신발 ‘뉴발란스’를 키워낸 짐 데이비스의 ‘과감한 역주행’, 추락해가던 기업을 기막힌 성공으로 반전시킨 ‘토이저러스’의 ‘이기는 조직의 문화’, 돈으로도 배울 수 없는 비즈니스의 밑천인 ‘별레의 시각’ 등……. 이 책에 등장하는 14가지 ‘태도’는 거인들의 치열한 삶과 조직의 승리를 만들어낸 비밀 무기였다.

20만 km 비행, 19명의 거인

정상에 오른 대가들의 인생 특장을 만나다

조선일보 ‘위클리비즈’에서 일하며 세계적인 석학 예술가, 경영인들을 직접 만났던 기자 김남인. 그가 만난 거인들은 모두가 눈부신 성공을 맛보고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쌓은 이들이었다. 그들을 인터뷰하며 거인을 만든 통찰과 생존의 힌트를 배웠다. 헤어질 때마다 거인들은 축복의 인사로 ‘자신들과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했다. 위클리비즈 지면에는 다 신지 못했던 거물들의 삶을 다시 불러냈고, 기사에 실린 내용을 최소화하고 추가 답변을 받아 새로 썼다. 머릿속에만 가둬두고 혼자만 열어보기 아까운 순간들, 두 눈으로 확인한 한 인간의 질감을 세상에 전하기로 한 것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대모라 불리는 세계적인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과 가족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일을 통해 가족과 인생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공한 이들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아

시아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여성에게 거인은 거침없는 인생의 조언을 건넨다. 그녀에게 전달된 뜨거운 격려는 혼자 듣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거인과 마주앉아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들을 책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 본 큰 세상과 더 넓은 통찰에 관한 이야기다.

평범함을 극복하고 최고가 된 거인들의 성공 비밀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태도'에 주목하라

‘누군가는 왜 같은 조건에서도 평범함을 뛰어넘어 최고가 되는가?’ 이 책의 출발은 이 물음에서 시작했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건딜 수 없이 힘든 난관을 넘어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다. 자신의 인생과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즉 태도의 문제였던 것이다. 흔히들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라고 말한다. 태도는 그 자체로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자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남보다 불리한 조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태도의 차이’가 필요하다.

인간 한계를 뚫고 무한 성장을 맞본 이들을 세상은 거인, 리더 혹은 전설이라고 부른다. 거인들이 가진 ‘태도의 차이’는 내가 살고 남이 사는 방법이였다. 삶과 일, 자신이 속한 조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책은 ‘태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인생의 통찰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김남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사회부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경찰기자, 교육 이슈를 다루는 교육기자로 일했으며 문화부에서는 서평을 쓰며 많은 책과 함께 했다. 2011~2012년에는 조선일보의 주말 경제·경영 섹션인 ‘위클리비즈’에서 일하며 세계적인 석학, 예술가, 경영인들을 직접 만났다. 모두가 눈부신 성공을 맛보고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쌓은 이들이었다. 그들을 인터뷰하며 거인을 만든 통찰과 생존의 힌트를 배웠다.

이 책은 1년간 지구 다섯 바퀴를 돌며 수십 명의 거인을 만난 기록이자 그들이 선물한 인생특강이다. 거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 있는 고급 지식과 경험의 지층을 섭렵해야 했다. 여정은 늘 촉박했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쉴 틈도 없이 마감과 씨름해야 했다. 그러나 거인들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는 인사로 축복을 건네며 자신들과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했다. 이 책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 그들과 함께 본 세상을 나누고자한 결과물이며, 저자의 첫 번째 책이다. 지금은 또 다른 의미있는 일을 찾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다문화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무엇이 그들을 거인으로 만들었을까

1부 일 WORK

CHAPTER 1 당신의 아침을 여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의 여왕, 트와일라 타프의 창조력의 원천

CHAPTER 2 최고의 강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끝없는 질문과 단련

CHAPTER 3 열정과 몰입으로 나의 브랜드를 증명하라

난독증 소년에서 세계적인 요리사로, 제이미 올리버의 자기 진화

CHAPTER 4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클릭으로 오지 않는다

월가의 전설 펠릭스 로하틴과 인맥의 황제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회장의 인맥 경영

CHAPTER 5 경쟁자와 다른 길이라면 거꾸로 가도 좋다

스티브 잡스의 신발 '뉴발란스'의 짐 데이비스와 토종 햄버거의 기적 '모스버거' 사쿠라다 아쓰시의 역주행

2부 조직 ORGANIZATION

CHAPTER 6 숫자놀음에 빠진 기업을 구하는 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밥 루츠 'GM'부회장의 개발자 정신

CHAPTER 7 조직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키우는가

고졸 출신 평사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 마이클 더커 '페덱스' 회장과 데이비드 파 '에머슨' CEO가 본 리더의 자격

CHAPTER 8 우리는 이기기 위해 일한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제럴드 스토치 '토이저러스' CEO가 말하는 이기는 조직의 문화

CHAPTER 9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비즈니스의 밑천

글로벌 PR기업 '에델만'의 리처드 에델만 CEO가 밑바닥에서 배운 벌레의 시각

3부 삶 LIFE

CHAPTER 10 이대로 주저앉기엔 너무 억울하다

궁극의 기부자 존 헨츠먼 '헨츠먼 코퍼레이션' 회장의 회복탄력성

CHAPTER 11 당신의 일 속에는 감정의 제자리가 있습니까

미국 직장인의 마음을 조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앤 크리머의 내면의 불 다스리기

CHAPTER 12 그들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

협상의 달인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부회장과 윤윤수 '힐라코리아' 회장의 협상 기술

CHAPTER 13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디지털 아트의 개척자 존 마에다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총장의 융합형 사고

CHAPTER 14 인생 전부를 걸고 싶은 일이 있는가

냉동 인간을 연구하는 과학자 로버트 에틴거의 자기 동력

책 속에서

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태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위력이었다. 삶과 일, 자신이 속한 조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정말이지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통찰,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뛰는 지구력, 크고 작은 실패에도 휘청이지 않는 열정. 태도의 차이는 이런 자질 안에서 만들어졌다. (15쪽, 프롤로그 '무엇이 그들을 거인으로 만들었을까')

타프가 5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 그녀의 몸에 발동을 걸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의식, 평생 수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그녀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기적과 같은 순간. 아침 5시 반에 택시를 타는 그 순간은 연습을 게을리 할 온갖 변명과 이유로부터 그녀를 탈출시키는 마법의 순간이었다. 타프는 오래된 이 아침 습관을 '반(半) 종교적 의식'이라 불렀다. (22쪽, '당신의 아침을 여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제품 앞에서 잡스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어떤 걸 내 친구들에게 사라고 할까?'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걸 살까?' 이 질문에 단순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품 모델을 과감하게 없앴다. 제품 종류의 70%가 사라졌다. (128쪽, '숫자놀음에 빠진 기업을 구하는 힘')

스토치는 기업에 '새로운 정체성', 즉 승리의 문화를 불어넣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의 장점이 아닌 나의 단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약점을 보완한다며 남의 강점을 따라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월한 지위에 있는 1등을 따라가기엔 희생이 너무 크다. 패배주의에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강점을 찾는 것이다 (168쪽, '우리는 이기기 위해 일한다')